



N

A

2024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활동 소식지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P

I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

VOL. 09  
ISSN 2508-8254

## CONTENTS

### 01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

국가정책정보협의회란?	04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연혁	04
제5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05
제10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06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포상	08
포스터세션	10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12

### 02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공동전시	14
협력 교육프로그램	20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	22
코리아메모리 콘텐츠 구축	22

### 03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23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23
정책기관 독서 동아리	28

### 04

#### 워크숍/ 세미나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	29
정책정보 최신동향 워크숍	33
공동 학술세미나	33

### 05

#### 회원기관 활동 소식

### 06

#### 부록

2024년 분과위원회 연구결과보고서	38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현황	54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입니다. 협의회 활동과 성과를 담은 「활동 소식지」를 통해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협의회와 회원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4년은 협의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2015년 협의회 창립 시 85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26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책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협의회 주요 성과로는, 먼저 정책 도서관계 협력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체로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회원들이 해외(스웨덴, 핀란드) 선진사례 연수를 통하여 글로벌 정책정보 서비스의 흐름을 조망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식자원 발굴·수집 및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은 물론, 정책정보 종합목록을 계획대비 230% 달성한 13만 8천 건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정보 상호대차서비스 이용률도 향상되었습니다.

정책기관 연구성과 홍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 전시 개최 및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인에게도 매력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위치의 전시서가 운영을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희섭



높였습니다.

기관 특성을 고려한 정책아카데미 전문강좌와 정책기관 순회대출은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로 꾸준히 회원기관의 많은 관심과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회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더욱 발전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아카이빙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책정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협의회는 ‘연결과 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아, 회원기관과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정책정보의 중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은 협의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5년에도 협의회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회원기관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0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

## 국가정책정보협의회란?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부·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 또는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로 2015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현재 268개 기관(2025. 1.)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수립 담당 공무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소정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승인을 받은 기관이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연혁

\* 협력사업 시작

2009

2009. 1.  
정책정보공유협의회 구성

2014

2014. 6.  
기존 가입기관을  
정책정보협력망으로 전환

2015

2015. 3.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2015.11.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창립 총회 및 세미나,  
제1기 운영위원회 구성  
2015.12.  
디지털컬렉션 구축 협력사업\*

2016

2016. 3.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2016. 6.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 사업\*  
2016. 9.  
제2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회칙 개정

2017

2017. 4.  
협의회 활동소식지 창간호 발간\*  
2017. 6.  
공동전시 개최\*  
2017. 6.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2017. 9.  
제3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제2기 운영위원회 구성

2018

2018. 4.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  
2018. 9.  
제4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2019

2019. 9.  
제5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제3기 운영위원회 구성, 회칙 2차 개정

2020

2020. 9.  
제6회 정기총회(서면보고)  
2020.12.  
2020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온라인세미나





### 제5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위원회

임기: 2023년 9월 7일~2025년 9월



제5기 운영위원회는 1차(5월 28일) 서면회의를 통해 제10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의견수렴을 하였다. 2024년 6월 24일 국립중앙도서관장 부임에 따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하게 되었고, 선출직 위원 중에 2024년 8월 16일자로 한국환경연구원 김윤희 책임연구원이 이직함에 따라 김지현 선임연구원이 선출되었다. 운영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28일(목) 국립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과 협력사업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제5기 운영위원회 2차 회의



## 제10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01 - 개회사(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

02 - 축사(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

03 - 경과 보고(최정순 부회장)

04 - 정기총회 및 세미나

국가정책정보협의회(국립세종도서관)는 「제10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2024년 9월 5일(목)과 6일(금) 양일간 서귀포 KAL호텔에서 개최하였다. 'AI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길'이란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도서관 설계에 대한 담론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회원기관 담당자와 도서관 관계자 총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고, 이어 정책정보자원 공유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협력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총 4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이 수여되었는데, 단체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인표창은 국토연구원 이새별 사서가 받았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AI 기술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는 강연과 담론이 펼쳐졌다. 주요 강연은 ▲서은경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의 “지속가능 발전과 정책: As We May Think”, ▲김정학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속가능한 도서관을 위하여: 도서관의 ESG경영”,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의 “AI 시대, 도서관 역할의 확장”과 특별강연으로 ▲정은혜 에코오트 대표이면서 생태예술가의 “생태예술, 마음과 자연의 조율”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박은주 국립중앙도서관 주무관이 “온라인 K-콘텐츠(공공) 납본·수집”으로 사업소개도 하였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05 - 기조강연(서은경 한성대학교 교수)

06 - 강연(김정학 고려대학교 교수)

07 - 특별강연(정은혜 생태예술가)

08 - 강연(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09 - 참석자 단체 사진

제10회 정기총회는 협의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회원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AI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다각도에서 담론이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서관계의 최신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고, 사서들의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 포상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회원기관들의 사기진작 및 정책정보서비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매년 협력 유공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단체 3개 기관과 국토연구원 이새별 사서가 받았다. 수상자들은 기관 소장자료의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화 및 대국민서비스, 정책정보종합목록,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정책기관 순회대출 등 정책정보서비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책정보 공유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적으로 협력 유공자에 선정되었다.

### 수상 소감

#### **h.well**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도서관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를 통하여 국가적 정보공유 확산과 인문학적 소양 향상에 기여하여 2020년, 2021년에 이어 3번째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여 더욱 뜻깊은 수상을 이루어 냈습니다. 2019~2020년도 생산된 공단 회귀 정책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서고를 구축함으로써 기관 발간물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단에서 만들어진 연구자료는 외부 기관,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정책정보 서비스의 국민적 수요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

스를 적극 활용하여 인문학 강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더불어 자발적인 재교육 연계를 하는 등 기관 내에서 직원 인문 교양 함양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서비스에 대한 각인과 인식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사서의 전문성 향상과 교류를 위한 방법으로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협력 교육, 정기총회,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 도서관의 사례를 배우고 도서관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분야일 수 있지만, 정책정보협의회를 통한 교류는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말처럼 끊임없는 발전과 영역확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강보험 전문도서관과 다른 도서관들이 정책정보협의회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더더 나가길 기원합니다.



##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영화진흥위원회 KOFIC자료실(이하 자료실)은 영화진흥공사 시절, 영화 후반 작업 등을 통해 수집된 시나리오와 검열 대본, 포스터, 카메라 박물 등 희귀 문화 예술자료를 소장했으며, 영화 분야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수집과 보존,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자료실은 2022년 부산 신사옥에서 재개관하였으며, 이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으로 정책정보 종합목록,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정책기관 발간물 전시서가, 희귀 자료 디지털화 사업, 분과위원회 등 다수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디지털 컬렉션으로 구축한 자료를 2023년,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광고로 보는 한국영화>, <영화제에 간 도서관>으로 전시해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2024년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인근 공공기관 임직원, 지역주민 대상으로 정책 교육을 서비스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한 덕분에 1인 사서이자 소규모 전문도서관으로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일을 수행하며 자료실은 물론 저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실과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영화정책, 산업 자료를 확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으로 활동하며 정책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국립세종도서관)와 함께 공동 전시 '집다: 우리책, 깊고 더하다'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학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의 콜라보 전시를 통해 우리 전통 책의 가치와 예술성을 재조명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만 명에 달한 전시 관람객수와 시민들의 호평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예산

절감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학도서관은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고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학 연구 및 글로벌 한국학 연구자 양성에 기여하는 한국학 전문도서관입니다. 앞으로도 한국학도서관은 이러한 역할을 더욱 확대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와 국립세종도서관 관계자분들의 물심양면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KRIHS 국토연구원

이새별

국토연구원 도서관 사서로서 2024년 정책정보서비스 협력 유공자로 표창을 받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고,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연구원 도서관은 국토개발,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서를 주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되어 국토발전과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 및 자료 공유 확대를 위해 정책정보서비스 및 다양한 협력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원이라는 특성상 연구와 관련이 없는 자료는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에게 교양서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협력사업과 정책정보서비스로 도서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관에서 필요하였기에 열심히 신청하였고, 서비스 지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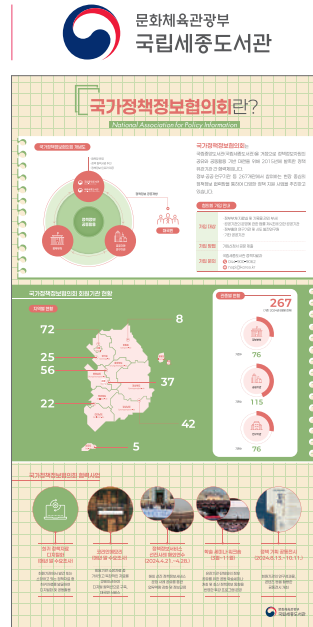
위해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정책정보서비스 및 협력사업은 국토연구원과 도서관에 너무나 좋은 도움이었기에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국토연구원 도서관에서는 기관에서 발간되는 연구성과물은 모두 원문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기사별로도 등록하여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순회대출,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희귀 정책자료 발굴 및 디지털화 지원 등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2024년 협력 유공자로 선정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관계자분들이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정성껏 조언해주신 선배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기관들과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드리는 사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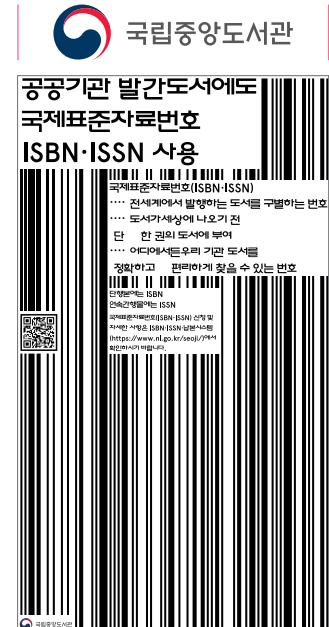


## 포스터 세션

정기총회에서는 회원기관의 다양한 정책 정보서비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포스터 세션을 운영하였다. 총 8개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과 도서관의 특화서비스 등을 다채로운 디자인의 포스터로 제작하여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공도서관에서도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사용

## 생물다양성도서관

## 책다방의 기적

어린이·청소년 영화교육프로그램  
“너랑봄” 사업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 결과

**KSLA Insight**

## 2024년 제9회 해양인문학프로그램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간 최신 정책정보 트렌드를 공유하고 공동연구함으로써 정책전문 사서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 지원 사업이다. 2024년에는 정부, 공공, 국책 연구기관 담당자 4명으로 구성된 '정책정보 전문역량 강화분과'가 1개 결성되었다. 활동 범위와 과업은 각 분과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분과의 주제는 '지능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도서관의 AI 윤리'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크게 ▲AI의 이해(개념 정의, 저작권 및 분쟁 사례 등), ▲전문도서관 성과 관리(개념 정의, AI 윤리 적용 제안 등), ▲표준 연구용역 계약서(안) 제안이다.

자세한 결과보고서는 본 소식지 부록에 수록하였다.

분과회의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분과별 7회 진행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근무지를 고려해 대부분 화상회의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다과 등 회의 진행경비를 비롯하여 도서 구입비, 전문가 강의, 도서관대회 참가비 등을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으며 연말 국립중앙도서관장 표창 추천, 협력 유공자 포상 시 가산점 부여 등을 인센티브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2024년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하였다.

2024년 성공적으로 운영된 분과위원회를 통한 정책 전문가 담당자들의 소규모 네트워크 모임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소소하지만 내실 있는 활동들이 꾸준히 모이고 축적되면 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기계발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전문사서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앞으로도 협의회 회원기관 사서들의 소통과 교류 기회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과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활동 소감



#### 대한민국 국방부

김은선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최신 동향 파악과 도서관 연구가 실무에 적용되고 업무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24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참가 신청 공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을 시작하면서 분과위원회에서 연장자라는 이유로 자문 위원장 직함을 받았습니다. 간사님의 섬외력 덕분에 우리나라 저작권법 권위자이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작권 연구용역 계약서 검토 의뢰'를 위해서 분과위원님들에게 전문가(변리사) 섬외를 제안하였고, 이어서 제안 표준계약(안) 연구성과물 도출한 과정에서 얻은 협력·소통 등은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서관 연구에 참고가 되는 전문서적과 지식정보서비스를 지원

받았습니다.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서로 근무하며 공통된 혹은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를 선형하여 극복하고 더욱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한 선·후배들의 사례가 있었기에,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분과위원장의 의견과 제안·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신 간사님, 제안한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주신 두 분 위원님 그리고 국립세종도서관 및 국가정책정보협의의 담당자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같은 분들의 성의와 추천으로 2024년 국립중앙도서관장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소속기관 연구성과물을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장기보존을 통하여 직원분들에게(이용자) 제공하는 도서관 연구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이라면 도전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분과위원회  
활동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  
(NAPI-KSLA  
공동 세미나)

##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연희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하고 ‘조금은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에 분과위원회 모집공문을 보고, 걱정보다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기간 동안 분과위원들과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나누고, 전문가 강연을 들으며 바쁘지만 활기차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AI’와 ‘저작권’이 우리 분과위원회의 주제어였는데, 아직은 제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관련 사안들이 도서관과 접목되었을 때, 이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 활동 덕분에 도서관대회에도 처음으로 참석해보았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다른 사서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게 된 것도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분과위원회를 통해 만난 다른 기관 사서선생님들과 업무에 관한 고민도 나누고 해결책도 함께 내보며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분과위원회 활동의 제 총평은 “참여하길 참 잘했다”입니다. 분과위원회 참여를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해주신 국립세종도서관 관계자분들과 함께 활동해 주신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홍수민

어떻게 하면 역량을 증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2023년 도서관대회에서 분과위원회 발표를 듣게 되었고 2024년에는 저도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와 연구위원 활동을 병행하는데 어렵진 않을까,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어 부족하진 않을까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걱정이 무색하게, 연구를 실제 실무에 활용하기도 해서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연구를 수행하면서,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의 강연 수강과 참고 도서, 정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서로 근무하

며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앞서 극복한 선배들의 사례가 있기에,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늘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주시는 분과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 그리고 지원해주신 국립세종도서관 및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담당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편한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 02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 공동전시

#### 2024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근현대 인쇄출판 특별전\_우리책, 김고 더하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공동전시 「김다: 우리책, 김고 더하다」를 2024년 8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립세종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전시는 경기도 등록문화재와 조선 후기에서 해방기까지의 초판본, 근대 베스트셀러, 문인들과 화가들의 책 장정과 삽화 등을 테마별로 큐레이션한 기획 전시로 총 9,763명의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우리책의 역사와 예술성을 흥미롭게 담아낸 전시

전시는 ▲조선시대 방각본과 완판본 소설의 발전을 다룬 「대중, 소설의 독자가 되다」, ▲19세기 후반 근대 인쇄출판의 시작을 알리는 「근대 '최초'라 부르는 서적들」, ▲일제 강점기 검열 속에서도 탄생한 근대 베스트셀러를 다룬 「창작과 열광, 근대 베스트셀러」, ▲문학과 미술의 융합을 조명한 「문학과 미술의 만남」의 순서로 우리책의 역사와 예술성을 흥미롭게 담아냈다.

#### 실물로 보기 어려운 문화재급 자료와 희귀본 전시

근대 초기 출판사의 최초 서적들을 비롯하여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해조의 신소설 「구마검」과 현전하는 최초의 번역동화집인 오천석의 「금방울」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종에서 첫선을 보였다. 또한 화가 김환기와 세종 출신 화가 장욱진 등 대중에게 사랑받은 최고의 화가가 그린 수많은 책 표지 그림과 삽화를 감상하는 것도 전시의 묘미 중 하나였다. 특히 시인이상이 장정한 「기상도」와 정현웅이 장정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원본 등 국내 몇 안 되는 희귀본도 전시하였다. 친우였던 문학과 미술가의 애정 어린 손길이 배어있는 장정을 전시하여 당대 한국 유명 화가들의 화풍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 근대 신여성 주제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체험 제공

운동주의 시를 직접 따라 쓰거나 딱지본 표지 그림을 색칠하는 필사 체험, 화가가 그린 작품 표지 이미지를 활용한 배지 만들기 체험, 내 취향에 맞게 조선 후기 한글 고전소설을 재구성하는 인쇄체험, 근대 연애와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제작한 미디어아트 상영, 옛책방(세책점) 재현, 근대소설 주제의 애니메이션(메밀꽃 필 무렵, 봄봄, 운수 좋은 날) 관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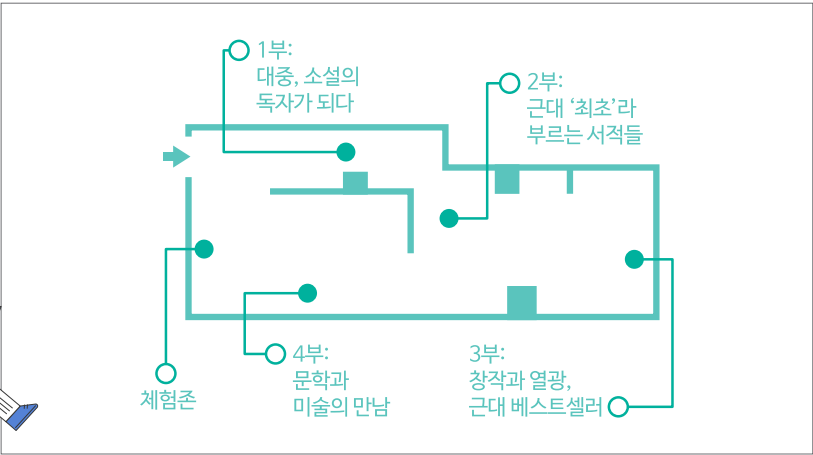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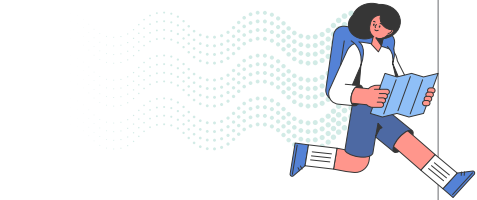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만나는 전시

전시를 직접 관람하지 못한 이용자를 위해 전시장을 그대로 재현한 VR 전시장을 제작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서비스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https://www.nl.go.kr>)



전시  
배치도



전시 개요





전시실 입구



인트로



2부 근대 '최초'라 부르는 서적들



1부 대중, 소설의 독자가 되다



## 체험 공간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나만의 고전소설 인쇄



필사, 그림 그리기

# 우리책, 김고더하다



3부 창작과 열광,  
근대 베스트셀러



4부 문학과 미술의 만남



배지 만들기



세책점



## 개막행사

### [인사말씀]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

### [인사말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축사]

곽승진  
한국도서관협의회장

2024년 8월 10일에 전시 개막행사를 개최하였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장, 차경례 국립세종도서관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공동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01 - 테이프커팅 02 - 내빈 전시 관람 (도슨트)

## 공동전시 소감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은희

이번 전시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와 국립세종도서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공동 전시였습니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근대 자료를 중심으로 시대별 옛 사람들의 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나열하는 전시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우리 책의 역사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책 표지에 담긴 예술적 아름다움과 옛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들어낸 책의 장정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비교적 젊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세심한 고민을 더한 전시였습니다. 그 결과 관람객들의 후기에서 전시에 대한 따뜻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지금 우리가 보는 책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전시되겠죠?”

“2024년에 세종시에서 만날 수 있었던 최고의 전시!”

“너무 멋진 전시였습니다! 김더 최고!”

이처럼 시민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 블로그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전시가 많은 대중에게 소개되었다는 점도 매우 뜻깊었습니다.

이렇게 책의 소중한 가치를 세종시에서 펼쳐낼 수 있었던 것은 국립세종도서관 담당자분들의 노고와 깊은 애정 덕분입니다. 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협력 교육프로그램

### 참여기관 소감



경영지원실(전문도서관) 김진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장애로 인하여 소외 받는 이들이 없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 저희 도서관에게도 소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위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을 주제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교육은 ‘건강보험 제도 A to Z’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유용한 제도를 소개하며, 건강보험이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차 교육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A to Z’로,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노후를 보장하고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안전과 자립지원에 대한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차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제도 바로알기’

1차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제도 바로알기’를 주제로 6.26.(수), 7.3.(수) 총 2차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진행하였다.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A to Z를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가(교수)정가 특별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 1강 건강보험제도 A to Z



### 2강 장기요양보험제도 A to Z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책전문가 강연프로그램인 ‘2024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협력교육프로그램은 회원기관의 정책전문가가 사회적 관심 분야에 대한 현안과 동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4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7월), 그리고 국토연구원(11월)과 함께 진행하였다.



## 2차 | ‘부동산 시장 금융 트렌드와 참여자 행동 토크아보기’

2차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과 협업하여 ‘부동산 시장 금융 트렌드와 참여자 행동 토크아보기’를 주제로 11.13.(수), 11.20.(수) 총 2차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진행하였다. 주택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정책금융 상품, 상승 시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분석을 주제로 국토연구원 전문가가 직접 강연을 진행하였다.

### 1강 주택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금융 상품



### 2강 상승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 참여기관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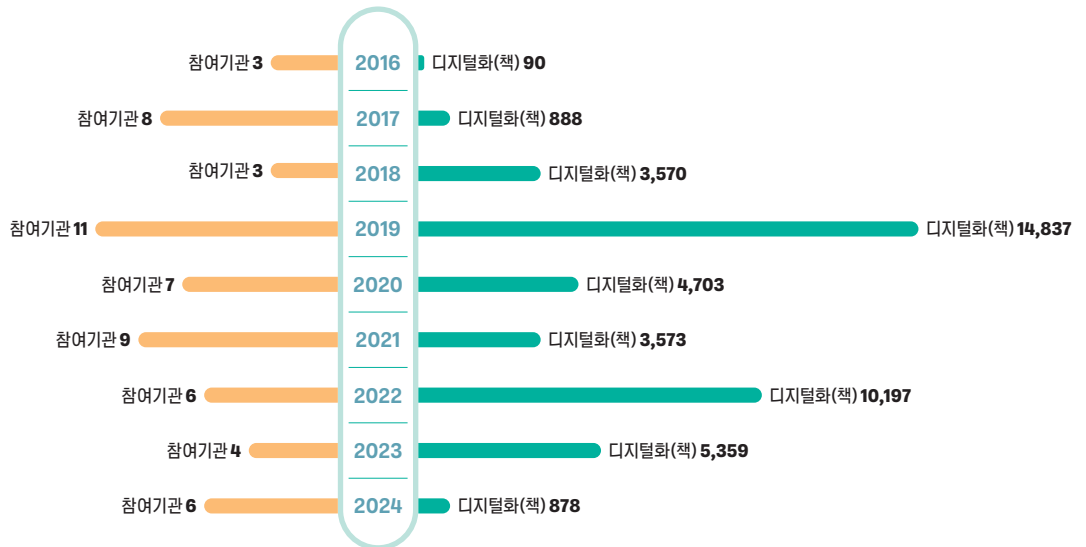
### 지식정보팀 이새별

우리나라 국토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국토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부동산 시장 금융 트렌드와 참여자 행동 토크아보기’라는 큰 틀 아래 ‘주택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금융 상품’, ‘상승 시 주택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로 구성하였습니다. 1회차 ‘주택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금융 상품’에서는 주택 관련 금융정책에 대한 소개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2회차 ‘상승 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통해서는 주택시장의 상승기장에서 우리의 행동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토픽 중 하나인 주택시장을 강의의 내용으로 선정하여, 강의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시민들의 참여율도 좋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연구자들과의 소통은 많이 이뤄지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생각보다 잘 이뤄지지 않는데,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강의를 통해 연구자들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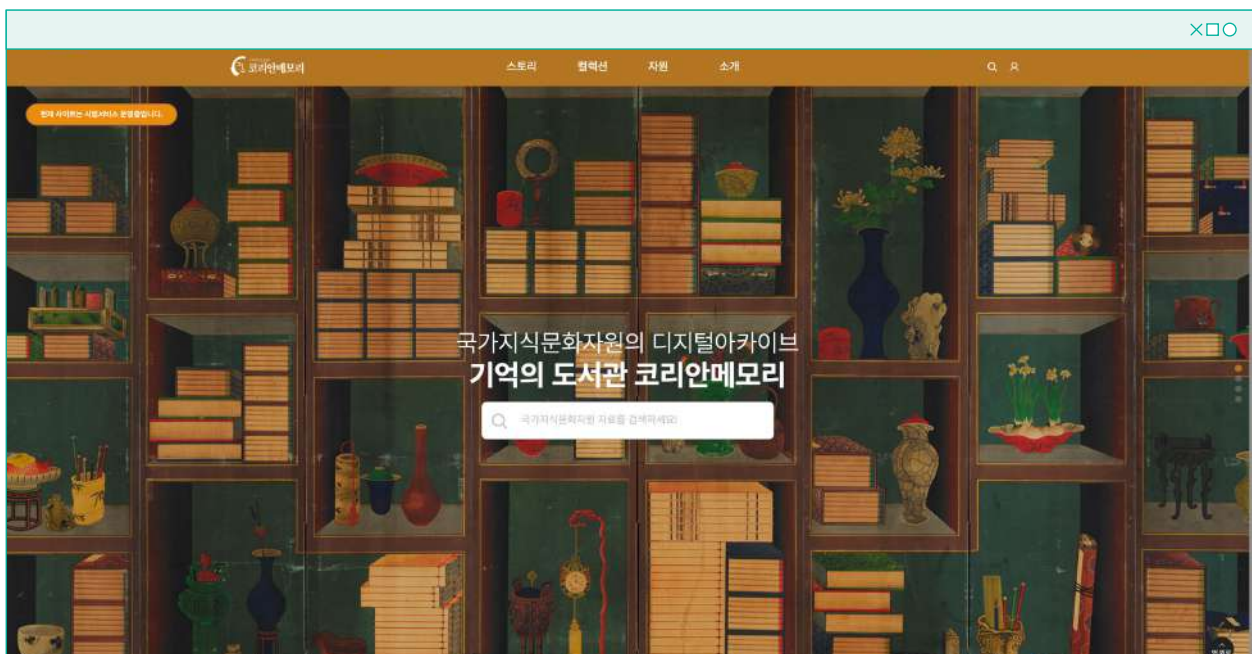
##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지원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소장하고 있는 정책자료 중 희귀자료를 발굴하여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국악원, 국토연구원, 농촌진흥청, 대한무역진흥공사 6개 기관의 878책(점)을 디지털화하였다.



## 코리안메모리 콘텐츠 구축

회원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가치 있고 독창적인 정책자료를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에 구축,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토연구원의 '균형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영상으로 만나보는 누구나 수출하는 시대' 2개 기관의 콘텐츠를 구축하였다.





03

#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



##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

‘찾아가는 정책정보서비스’는 국가정책 정보협의회 회원기관 간의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와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2015년을 시작으로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기관 순회대출서비스」는 AI 기술, 경제·인문·사회 트렌드와 관련된 신간 교양서를 제공하여 회원기관 소속원의 정책 전문성과 업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서를 순회하며 대출하는 서비스다. 경남연구원 등 20개 기관에서 5,000권을 지원받았으며 분기별 100·150·200·250권을 지원받았다. 이는 기관당 연간 총 700책의 도서를 이용한 셈이다.

##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소속직원의 정책역량 함양 및 도서관(자료실)의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는 정책 및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강의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2024년 한국화학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총 895명이 참석하였다.

연번	기관
1	경남연구원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국립국악원
4	국립생태원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국가유산청
8	질병관리청
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0	한국교육개발원

연번	기관
11	한국국방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한국소비자원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	한국환경공단
20	한국환경연구원

\* 기관명 가나다순

차수	기관	날짜	강의주제
1	한국화학연구원	4.18.	우리는 왜 지구의 위기를 외면할까?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24.	유연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관계의 기술
3	국립생태원	5.8.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22.	유연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관계의 기술
5	영화진흥위원회	5.29.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6	국립문화유산연구원	6.5.	유연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관계의 기술
7	농림축산검역본부	6.12.	예술로 배우는 인간관계
8	환경부	7.16.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 운영 날짜순



## 참여기관 소감

###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관리팀 조소희

2024년 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기관 순회대출서비스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과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회대출서비스는 우리 기관의 연구자와 내부 이용자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신청부터 도서 수령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연구자들은 기존에 접하기 어려웠던 도서를 활용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정책 수립과 아이디어 발굴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경제, 법률 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접할 수 있어 융합적 연구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자 외에도 일반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여가를 위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기관 내에서 긍정적인 독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유관 연구기관에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 KIDA 한국국방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 지식정보부 지식자료팀 장길수

전문도서관의 특성상 교양도서를 충분히 구비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2024년 정책기관 순회대출 서비스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분기별로 제공된 순회도서는 연구자들에게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곧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최신 도서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직원이 도서관 방문을 즐거운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제한된 도서구입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양도서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기관 내 독서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이

끌어 났습니다. 또한, 순회대출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보고서나 논문 중심의 자료에서 벗어나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더불어, 분기마다 신간 도서를 기다리는 직원들의 설렘과 관심은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실 이상의 공간으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책 추천과 대화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도서관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순회대출 참여기관 간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책정보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해 주신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정보전략부 지식정보서비스실 배성진

ETRI도서관은 순회대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도서관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순회대출도서 서비스를 포함한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전에는 전자도서관이 아닌 단순 도서관리 프로그램으로 순회대출도서만을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 도서 관리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사서는 도서 관리가 쉽지 않고, 이용자는 도서 정보를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회대출도서를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자도서관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신규 전자도서관을 설계했습니다. 매 분기 약 200여 권의 순회대출도서가 도착할 때마다 국립중앙도서관 KOLIS-NET에서 서지 데이터를 시스템에 일괄 반입하였으며, 대출 및 반납을 관리하기 위해 각 도서의 등록번호를 ISBN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순회대출도서를 직접 검색

하고 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대출 권수를 조정하거나 연체 시 통보문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등 시스템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무인으로 자유롭게 순회대출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셀프 도서 대출·반납 키오스크 시스템을 설계·구축했습니다. 순회대출도서 서가는 이용자에게 가장 눈에 잘 띄는 도서관 2층 입구에 배치하였고, QR 코드를 부착하여 매 분기 순회대출도서 목록을 모바일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4년 순회도서의 대출권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책기관 순회대출서비스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서관에서 전공 도서만 찾던 이용자들의 인식을 바꿔 주었으며, 우리 도서관 서비스를 새롭게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고마운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국립세종도서관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단 정보보안관리팀 정소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에 자리잡은 기관입니다. 기관의 대구지역 이전 초기인 2017년, 2018년에 지원받은 '순회대출서비스' 도서들은 새롭게 정비한 도서관 공간에 매우 인기 콘텐츠였습니다. 기관의 업무 특성상 컴퓨터과학, 기술공학, 경영, 경제 분야가 주요 서비스 장서이기 때문에 '순회대출서비스'로 지원받은 철학, 문학, 자기계발 등의 다양한 주제 도서들은 직원들에게 휴식과 즐거움, 독서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장서였습니다.

2024년에 다시금 '정책기관 순회대출서비스' 지원에 선정되어 연간 700책의 장서를 지원받으며,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지원 도서부터 반영되는 '50책

의 신규 신청도서'의 수요를 제출하기 위해 기관 내부적으로 '직원 선호주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호도 비중이 높은 주제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신청도서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준비하고 기관 내부에 알리며 신규 도서까지 입수되는 과정을 통해 '순회대출서비스'의 존재감이 직원들에게 각인되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순회대출 도서의 이용은 도서관 방문의 마중물이 되어 기소장자원을 포함한 전체 대출량이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전문도서관에게 '정책정보서비스의 지원'은 도서관과 사서의 업무수행을 돕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되어줍니다. 정책정보서비스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정보팀 김혜윤

이번 국립세종도서관의 지원을 통해 운영하게 된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평소 도서관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역할과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기관 도서관의 특성상, 연구 분야 외 주제의 강사를 섭외해서 강연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쉽게 관심을 가

질 법한 인문·문화예술 주제의 강연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연 형식의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내내 내부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고, 강연 이후에도 다음에 또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을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마련해주신 홍보물과 기념품도 당일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국립세종도서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지식문화부 이미선

평소에 유명한 작가들의 강연을 요청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의 관심도 높은 주제의 강연을 위해 올해 2024년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로 유명하신 강원국 작가님을 초청하여 글쓰기 주제로 강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특성상 자연

환경조사 등으로 직원들의 외부 출장이 많아서 강연 참석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은 인원의 직원들이 강연에 참석하였고 관심과 호응도 또한 높았던 강연이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주제 강연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노하우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말과 글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한 강사님의 직장 내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충남 서천까지 먼길 오셔서 강연해 주신 강사님과 좋은 기회를 주신 국립세종도서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보화담당관실 임난주

환경부 역시 자료실에서 강사를 섭외해 강연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 사업을 통해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특히 같은 강사의 강연을 더 긴 시간으로 다시 듣고 싶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협의회 회원 기관 소속원의 정책역량 함양 및 자료실 역할 강화’라는 사업 목적에 딱 맞는 결과를 이룬 것 같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정책기관 독서 동아리

공직자의 독서문화진흥과 창의적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 부처에서 활동하는 독서 동아리를 발굴하여 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분기별 도서 지원 책수는 총 493책이었으며, 11개 기관 12개 동아리를 운영하여 총 233명이 참여하였다.

### 참여기관 소감



#### 인사조직과 송한나

2024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도서 지원을 받아 처 내 직장 독서동아리를 더욱 풍성하게 활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 대상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서 지원을 받게 되면서 회원들이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여 도서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원하는 도서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회원분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고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동아리 회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동아리의 모임은 정기모임과 소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모임에서는 두 분씩 도서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소모임은 동아리 내에 독서와 관련된 여러 소모임(인문학 강연 모임, 소설 원작인 영화 시청 모임, 책 한 권 같이 읽기 모임, 글쓰기 모임 등)을 만들어 회원 중에 소모임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친목 및 심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같이 읽기 모임에서 도서 지원을 받은 책이나 같이 읽거나 읽고 싶은 책 중, 한 달에 한 권 도서를 선정하여 각자 읽은 소감과 도서 선정

자가 준비해 온 질문에 대해 토론하면서 책에 대한 배경지식과 각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다채로운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원받은 도서를 읽고 후기를 공유하는 밴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기를 통해 새로운 책을 엿보게 되면 그 책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되고 읽고 싶게 되었습니다. 최근 밴드에 올라온 후기 중에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 있다면'의 후기도 올림을 줘서 좋았습니다. 이 책은 90세 전후의 어르신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현대판 고려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의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더 복잡한 세상이 되었고 오래된 것, 낡은 것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쓸모없어졌다고 점점 그렇게 인식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구전이나 책으로만 전달되던 시대에 선생님과 어르신은 그들의 삶과 경험, 지식을 존경받았지만, 현재는 어린 청년들의 정보력과 지식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책을 알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의 지혜는 그분들을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는 현 세대에 더 가치 있고 되레 얻기 어려운 지혜가 아닐까 하는.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삶과 태도, 마음가짐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답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돋다: 인사혁신처 독서 동아리



## 04 회원기관 워크숍 세미나

###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서는 해외 선진기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정책정보 서비스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5박 8일 간 정책정보서비스 선진사례 해외연수를 진행하였다. 총 15명이 참가하였으며 스웨덴과 핀란드 2개국 7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스웨덴

#### 스웨덴왕립도서관 Kungliga Biblioteket



- 스웨덴의 국립도서관으로 도서관 정책과 계획을 실현하며, 지역 도서관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민주주의 개발 및 지식 전달을 위하여 모든 자료를 수집·보존·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 시스타도서관 Kista Bibliotek



-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관이 단독적으로 해낼 수 없는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한다.
- 쇼핑센터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개방적 공간 덕분에 일상 속 친밀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스톡홀름시립도서관 Stockholms Stadsbiblotek



- 스웨덴의 건축가 군나르 아스플룬드가 1928년에 건축한 도서관으로, 개관 10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 나이, 신분, 장애를 떠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공공도서관이다.

#### 노벨박물관·도서관 Nobel Prize Museum



- 알프레드 노벨과 노벨상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 교사를 위한 교육 및 노벨상 강의를 포함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며, 공연·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핀란드

### 헬싱키대학교 도서관

Helsingin Yliopiston Kirjasto



- 4개의 캠퍼스와 11개 학부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 외 지역 주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이다.
- 1930년대부터 한국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한국어전공, 한국문화전공 두 개의 전공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학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다.

### 오디 공공도서관

Oodi Helsingin Keskustakirjasto



-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설립된 도서관으로 2019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주관 '올해의 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 기능성과 디자인이 겸비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에서 벗어난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 핀란드국립도서관

Kansalliskirjasto



- 1640년 헬싱키대학교와 함께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내 모든 출판물을 수집·관리한다.
- FinELib 컨소시엄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핀란드 전역의 연구소 및 교육 기관에 학술 저널 및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 참가자 명단



김슬기



국립중앙도서관

문현주



농림축산식품부

박은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

박효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

신은식



국립외교원

안재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

안정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윤연화



해양수산부

이문자



국립중앙도서관

이영선



외교부

이진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태환



국립중앙도서관

차경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최서영



환경부

최정순



## 참여자 소감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지원과 박은아

- 스웨덴과 핀란드의 5박 8일 일정은 선진 국가의 다양한 도서관 방문과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관종의 도서관 운영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확인하고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양국의 연수 기관 도서관들이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인 민주주의와 평등성에 기본을 둔 정책들은 정부

기관, 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또한 우리 도서관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되었습니다.

- 이번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여러 정책서비스를 우리나라 도서관들에 접목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 가능하게 된 좋은 계기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 부 자료실도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국립외교원

#### 도서관 안재희

-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멀게만 느껴졌던 국가들과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북유럽 선진국들답게 외관부터 멋지고 감탄스러운 도서관들이 관광객들의 필수코스가 될 정도로 명소로 자리매김한 모습은 참 부럽다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 국립도서관에 부여된 권한과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이 너무나 잘되는 스웨덴, 시민의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탄생한 핀란드의 오디 공공도서관을 보면서 우리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저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서관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행동하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연수 일정과 장소를 고민하고 계획하신 정책정보협의회 모든 분께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지능정보실 윤연화

- 국가도서관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국가문헌을 수집·보존하는 스웨덴왕립도서관, 핀란드국립도서관은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품격 있는 도서관으로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싱키 대학도서관은 자연채광과 세련된 실내 디자인으로, 교내 학습 및 연구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시스타도서관 및 오디 공공도서관은 시민들 가까이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민자와 난민들까지 포용한 다문화서비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 도서관마다 특성에 맞게 다른 운영 철학을 가졌지만, 이용자와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서비스 콘텐츠는 관종을 초월하여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사서로서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준 국립세종도서관에 감사합니다.

##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기획총괄부 최서영

- 광범위한 자료 수집부터 문화 공간 및 다양한 대상을 위해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들을 방문하며, 이를 위한 기반(법, 제도, 예산, 인력)과 시민 의식을 갖춘 복지 선진국의 면모를 제감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오티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회의실, 녹음실 등의 실용적인 시설을 갖추고, 카메라, 악기 등의 장치도 대여해주며, 보통 민간에서만 해소 가능한 요구들을 많이 수용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납본법을 근거로 각종 자료를 모두 수집해 AI 모델을 구축하고, 사서도 AI 학습을 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무 영역과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 많은 도서관이 아동, 장애인, 소수민족 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국가 정책 부응, 사회 문제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선진사례 벤치마킹 측면에서는 단시간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으나 AI 학습, 국민과의 소통,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체계·태도를 업무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 환경부

### 정보화담당관실 최정순

- ‘민주주의’를 도서관에 실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빈부, 인종, 연령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 등 시민들이 충분히 도서관에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아카이브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이 감명 깊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책만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책은 물론 영상, 팜플렛, 심지어 광고지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AI의 데이터를 도서관에서 제공합니다.
  - AI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습데이터와 정답데이터를 찾는 것인데 스웨덴왕립도서관에서는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구현해 가고 있었습니다.
  - 챗GPT의 할루시네이션보다 오히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AI 기술 구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이 AI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 및 구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책정보 최신동향 워크숍

### 전문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 사례

**제목** 한국은행 도서관의 경제·금융정보서비스 제공 사례  
**발표** 고유미(한국은행 도서관 사서)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분과위원회 성과발표(정책정보 연구분야)

**제목** 지능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도서관의 AI 윤리  
**발표** 김은선(국방부 도서관 사서)

###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 공유

**제목** 국립세종도서관 온라인 정책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발표** 김규환(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책정보 최신동향 워크숍



분과위원회 성과발표



정책연구 결과 공유

## 공동 학술세미나

2024년 6월 20일(목)~21일(금), 롯데리조트부여에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문도서관 사서 등 총 115명이 참석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시대, 전문도서관의 시기술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2개 전문가 초청 특강과 5개 사례발표를 하였다.



공동학술세미나 단체사진



공동학술세미나 단체사진



## 05 회원기관 활동소식

###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서 기증 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는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 임직원 도서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독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 문화활동 붐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행사는 본원 1사옥 2층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동부터 성인까지 읽을 수 있는 동화, 소설, 위인전, 백과사전 등 총 991권을 임직원으로부터 기부받아 도서 소독기를 통해 소독 절차를 실시하였다. 이중 심평원에서 선별한 도서 200권을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자작나무 도서관에 기증하여 지역사회 내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강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분부는 2024년 6월 17일, 경기도 양평군 명달리마을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도서기증식을 진행하였다. 환경정화 활동은 마을 명소인 명달계곡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폐기물, 일반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기여하였다. 또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대 지식과 문화를 나누고 도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경기남부분부 직원들이 소장했던 도서 약 200권을 명달리마을 도서관에 기증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기증 활동을 바탕으로 점차 지역사회 내 도서기증 활동을 확대해 나가며, 독서문화 붐 조성 과 독서 취약계층 지원에 힘쓸 것이다.



임직원 도서나눔 캠페인



명달리마을 도서 기증식

## 기증도서 희귀본 46권 디지털복원 사업 추진



국립생물자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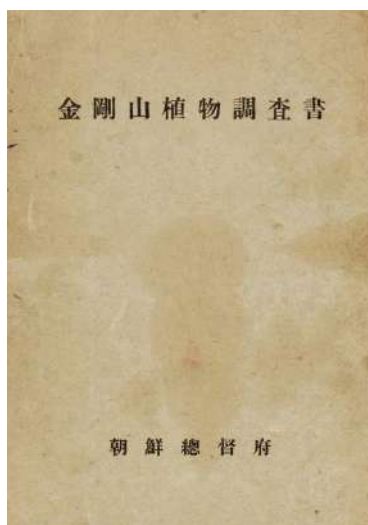
조선식물 상권(건식 세척)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은 개관(2007년) 이래 고(故) 이영노 이화여대 교수, 선병윤 전북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총 27명의 생물학 원로학자로부터 생물학 관련 귀중본 약 1만 5천여 권을 기증받았다. 이 기증자료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를 담고 있어, 우리나라의 식물분류 및 곤충 연구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도서관은 기증 도서 중 학술 가치가 높은 희귀본을 선별하기 위해 '희귀본 감정평가단'을 발족·운영하였다. 평가단은 1910년 일제 강점기부터 1946년 해방 이전까지의 국내외 고문헌 200여 권을 대상으로, 원본(초판) 여부, 우리나라 생물상 조사 내용, 기후 위기 비교 연구의 가치 등을 고려해 최종 46권을 희귀본으로 선정했다.

눈에 띄는 희귀본으로는, 「금강산식물조사서」(조선총독부, 1918)를 비롯해 1915~1918년 사이 발간된 지리산, 금강산, 백두산 식물 조사 보고서들이 있다. 이들 자료는 지난 100여 년간의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상의 변화를 추론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조선식물도설(유독식물편, 1948)\*\*은 우리나라 식물의 이름, 한자, 일본 이름, 분포, 성분 및 이용 사례 등을 담고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생물다양성도서관은 희귀본 46권을 포함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의 '온고지신' 정신을 계승하고자 고문헌 디지털 복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부 고서는 2025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인 \*\*'희귀 정책자료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복원될 예정이다.



금강산식물조사서



백두산식물조사서



지리산식물조사서

## 국립생태원 전자책 콘텐츠, 민간 콘텐츠 플랫폼 무료 서비스



기후·생태 위기가 사회 및 국제적으로 큰 이슈인 오늘날 국민들은 체감도가 높은 생태·환경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정보 활용을 고도화하고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자료로 만든 전자책 콘텐츠를 민간기업의 인터넷서점 및 전자책 서비스 유통 전문 플랫폼을 통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부터 국내 최대 전자책 서비스 유통기업인 교보문고와 제휴협력을 시작으로 국립생태원 생태정보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생태정보 전자책 콘텐츠를 전 국민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하였다. 2024년에는 알라딘, 부커스 등 전자책 전문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국립생태원 전자

책 서비스 플랫폼 기반을 확장하였다.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책은 국립생태원이 그동안 수행해 온 생태연구·전사·교육 분야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지금까지 생태·환경 이슈를 다룬 다양한 콘텐츠 170종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생태원은 민간기업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보급 채널을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태정보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생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 기반 외부 연구자 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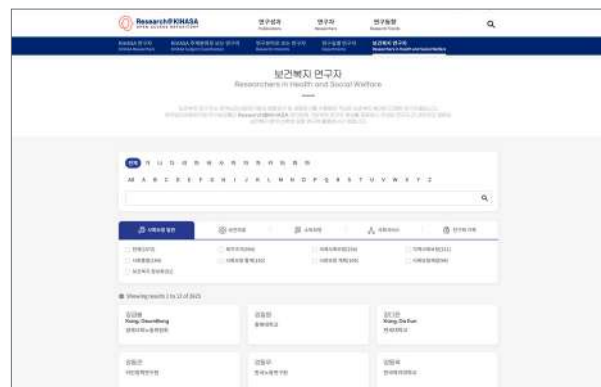
보건복지 분야 정책 현안의 복잡성 증가와 정책연구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외부 연구자와의 연계와 협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기존 내부 연구자 정보 외에 융복합적 연구과제에 참여할 보건복지 분야 외부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기관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 기반 연구자 정보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 간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복지 분야 산학연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연구자 페이지의 서브 메뉴로 '보건복지 분야 연구자' 신설

기존 기관 소속 연구자 페이지 메뉴 외에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에 구축된 연구원 성과물에 기반하여 약 3천 5백여 명의 보건복지 분야 국내외 외부 연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 연구실적을 표출하고 외부 연구자의 최근 타 연구실적(KIHASA 성과물을 제외한 연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자 식별번호인 ISNI와 국가연구자번호 등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연구자가 공동연구에 적합한 연구실적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부 연구자 DB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신설

중복 입력된 외부 저자 데이터에 대한 검토 및 병합 기능과 중복 입력 방지를 위해 입력 절차에 관리자 승인 단계를 도입하고 신규 저자 등록 페이지에 ISNI, 국가연구자번호 검색 기능 추가, 저자 이력 관리를 위해 저자의 소속기관을 2개 이상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하였다.



<https://repository.kihasa.re.kr/browse-external-researcher>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서관 재개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2024년 9월 청사 3층에 KLID Cafe Library를 오픈했다. 개발원은 2016년 신청사로 이전 후 2층 개방공간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고 부족과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독립된 공간에 재조성한 도서관은 청사 내 유휴 공간을 책과 함께 읽이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단순 휴식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콘셉트로 했다. 창박을 조망할 수 있는 바 좌석, 높은 칸막이로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소파 등 다양한 형태의 열람석을 구비하고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업무 도중 재충전할 수 있

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 세계 명화 작품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보여주는 디지털액자를 설치해 직원들의 인문학적 감성 함양에도 힘썼다. 도서관에는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주제분야의 도서 7,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 희망도서를 주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개발원은 도서관 운영과 더불어 전자책 서비스, 독서동호회 운영, 독서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개발원은 직원들이 독서 친화적인 근무 환경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업무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부록

2024년 분과위원회  
연구결과보고서

## 전문도서관의 성과 관리를 위한 제언(안)

AI 활용 윤리를  
중심으로

### 분과위원회 참여기관 및 위원

김은선	국방부	위원장
박상욱	국방과학연구소	간사
김연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위원
홍수민	영화진흥재단	위원

1. 연구 배경 및 목적	39
2. 연구 방법론	39
3. AI의 이해	40
3.1. AI 개념 정의	40
3.2. AI의 저작권	42
3.3. AI 기술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43
4. 전문도서관 성과관리	45
4.1. 성과관리의 개념	45
4.2. AI 윤리 적용 제언	45
4.3. 후속 연구 제언	45
[참고문헌]	46
[부록] 연구용역 계약서	47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서관은 대중성과 전문성이라는 카테고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중적인 성향이 강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일부 전문성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만 그 깊이나 범위가 넓지 못한 경향이 있다.

반면 전문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문성과 학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전문도서관의 경우 모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며 주제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보인다.

최근 사회적 경향은 인공지능(이하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모든 사업영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AI 기술은 최근에 나타난 개념이 아니다. 1940년대 폰 노이만은 AI와 관련된 최초의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후 앨런 튜링의 튜링테스트를 통해 AI의 진보성 즉, 얼마나 인간을 닮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의 'AI에 대한 다트머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AI의 용어가 정립되었다.

이런 AI는 각 시대에서 제안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 기능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AI 기술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의 대부분 상업영역으로 그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현 사회에서 AI는 문화, 산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망라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가공하기까지 한다.

우리 전문도서관 또한 내부적인 서비스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거나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서비스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 중이다. 이런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업무 영역 중 내·외부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성과를 수집·관리·확산하는 과정에서 정보전문가로서의 조언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이 최근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서관계 전반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AI와 관련하여 우리 회원기관과 나아가 지식 정보를 관리하는 우리 '사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관심도와 사용도가 높은 AI 기술은 도태되지 않고, 우리 도서관계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도서관 특히 우리 전문도서관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에 속한 대다수의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이하 KSLA) 회원기관은 기관발간물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AI 기술은 관리 과정에서 편의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와 상응하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책정보분과위원회의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의 성과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전문도서관계에서 AI 윤리를 적용하고 업무적 활용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KSLA의 회원기관 중 기관의 규모, 연구용역의 수행도 등을 판단하여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세부적으로 과학기술분야 14개, 인문사회분야 13개, 국방부와 같이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분야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관의 연구사업 관련 규정, 연구윤리 관련 규정, 계약 관련 규정, 저작물 관련 규정, 보안 관련 규정, 기관 운영 규정 등을 분석하였다.



[표 1] 조사 대상 기관 목록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기타분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경기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국방기술품질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극지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전력기술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 3. AI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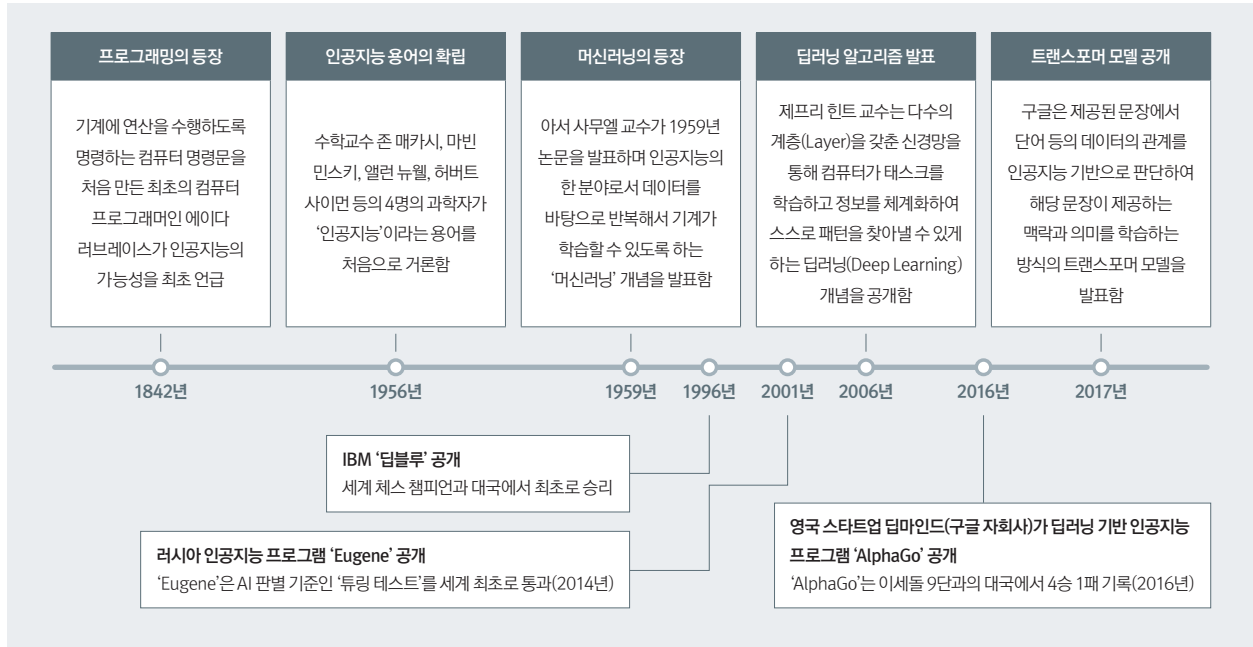
#### 3.1. AI 개념 정의

AI는 인간의 지능적 능력과 기능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는 기술과 응용을 다룬 학문이다. 이는 1943년 월터 피츠(Walter Pitts)와 워런 매컬러(Warren Sturgis McCulloch)가 인간의 사고 체계를 모델화한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sup>1)</sup> 이어서 1956년에 열린 다트머스 컨퍼런스(Dartmouth Conference)는 AI 연구의 시작점으로 여기어진다. AI은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서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에 의해 “기계를 인간행동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이후 1959년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프로그래밍 언어 ‘LISP’를 공개하면서 AI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런 AI와 관련된 연구는 튜링테스트를 통해서 더욱 명확화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AI의 판별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며 AlphaGo와 Chat-GPT와 같은 프로그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림 1<sup>2)</sup>)

1) 정동규 (2017).  
인공지능 기술과 주요 적용 산업  
동향.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5(2), 21-28.

2) 최창환 외 (2023).  
Chat-GPT와 생성형 AI가  
만드는 빅테크 플랫폼 혁신.  
Issue Monitor, 159

[그림 1] AI의 발전 과정



AI 기술은 인간의 뇌신경과 학습능력을 모방하고 있으며, 이런 학습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을 가진다. 첫째,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의 경우 주어진 입력 데이터와 대응하는 출력력을 예측하도록 기계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회귀분석을 통해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으로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은 명확한 정답 없이 목표만을 설정하고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의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셋째,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기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최적의 행동을 통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학습 방법이며, 마지막으로 딥러닝(Deep Learning)은 인간의 뇌신경을 흉내 낸 인공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군집화하고 새로운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sup>3)</sup>

이런 다양한 AI의 학습 방법은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딥러닝(Deep Learning)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AI의 학습 능력과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AI 기술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모형의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되고 있다.<sup>4)</sup>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을 시작한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성 정보 처리 분야에서는 STT(Speech to Text)와 TTS(Text to Speech) 기술을 통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한다. 이런 기술은 번역, 로컬라이징,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sup>5)</sup> 이와 함께 영상 분석 및 생성에서는 영상이나 사진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딥페이크(deepfake)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이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형/판단형 AI, 인간과 유사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생성형 AI 등 AI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sup>6)</sup>

이후 대형 언어모델인 생성형 AI인 Chat-GPT(Chat-GPT)의 등장으로 일반인에게도 AI에 친숙해지고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Chat-GPT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3) 조성민 (2024).  
AI 대전환 시대, 초격차 AI.  
서울: 열린인공지능.

4) 채명식, 조유리 (2023).  
KISTEP 브리브 110:  
2023 인공지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이운우 (2024).  
NAB 국외출장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6) 김지원 (2017).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학과.

7) 윤종민 (2023).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관계 정립 방향. 강원법학,  
23(11), 1-52.

8) 박희영 (2023).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안(AI  
Act)과 저작권법: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3(19).

9) 강진원, 김혜나 (2024).  
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 윤상필 (2023).  
미국 인공지능 규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16(2), 235-  
240.

데이터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일반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고객 서비스, 언어 번역, 콘텐츠 제작, 프로그래밍 지원 등에 활용된다.<sup>7)</sup>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은 논의할 문제 또한 확인된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컴퓨팅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기업과 우수 대학 중심의 기술 독점화, 학습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한 부적합한 결과물의 생성, 그리고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등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최근 AI 법안(AI Act)을 통과시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이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sup>8)</sup>

### 3.2. AI의 저작권

오늘날 AI 기술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으며, 보호의 대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영역에서 보조적인 기술로만 존재하던 AI 기술이 이제는 문서 작성, 그림, 음악 등 창작의 영역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저작권 관련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AI 기술은 딥러닝과 같은 기계학습 과정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AI 기술로 제작된 결과물이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표절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저작권법 상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로 생성된 작품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바우처’ 제도를 통해 데이터 이용 면책 규정을 마련하며, 현행법과 산업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23년 3월 ‘AI 저작물 등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작권 신청 시 AI의 창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연합(EU)은 ‘AI Act’를 통과시키며 고위험 AI에 대한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범용 AI 개발업체가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AI 기술은 글쓰기, 영상 제작,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창작의 영역까지 확대되었으며,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sup>9)</sup>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저작물을 제작할 때는 여러 참고 자료가 활용되고 있으며, AI가 임의로 수집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함께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AI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이다. AI는 사람과 다르게 윤리 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자료로만 학습할 경우 결과물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절이라는 주장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작품 또는 미술작품 공모전에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출품되고 당선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AI 저작물 등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 저작권 신청 시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의 기여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관여도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국내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도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43조는 ‘데이터마ining’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



11) 구경민 (2023.8.22.).  
신문협회'생성형 AI뉴스,  
뉴스저작권 침해 방지'기준 마련  
촉구. 머니투데이,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217501155986>.

12) 유원모 (2023). 생성형 AI의  
뉴스 학습, 언론사에 대가  
지불 의무화해야. 동아일보,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19/122684215/1>.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관계부처 협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서.

14) 학기술통신부 (2020).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헌 의원 등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AI를 이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율형 AI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형 AI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AI가 인간처럼 사상과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특이점에 도달하면 AI도 창작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I를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지,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른 법률 및 규제를 통해 AI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를 대비한 법적 원칙과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3. AI 기술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한국신문협회는 2023년 8월 생성형 AI 개발기업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출처를 명기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sup>11)</sup>

첫째, 뉴스 저작권자와의 이용 기준 협의  
둘째,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셋째,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

넷째,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의 구체적 명시  
다섯째,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 마련

이후 한국신문협회는 학습과 활용에 대한 대가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다.<sup>12)</sup> 이와 함께 폰트 저작권 침해 사례도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는 폰트 저작권 보호와 공정 이용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정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폰트의 저작권 보호라는 주요한 쟁점 아래, 폰트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권 이해를 바탕으로 폰트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더 나은 전자출판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행정적 수단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2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등의 윤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동으로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AI의 활용 확산 분야로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 분야가 정리되었다.<sup>13)</sup>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윤리 기준(안)'을 발표하며,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3대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공의 선을 지키며, AI 기술을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는 목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데이터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수집 시 해당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활용할 때 편향성을 최소화하도록 품질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up>14)</sup>

국외 사례로는 2021년 9월 유네스코가 제안한 'AI 윤리 권고안'을 확인할 수 있다. 권고안에서는 AI 시스템의 이익, 우려 및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윤리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데이터 정책의 개발과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통해 AI 시스템 훈련의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 이해, 홍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A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공공 교육을 제공하고, AI 윤리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이런 정책의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15)</sup>

첫째, 윤리적 지킴이(Ethical Stewardship)로서 AI 시스템의 전 주기에 걸쳐 윤리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개인, 제도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AI의 장점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해 나가는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윤리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데이터 정책을 독립 영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디지털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부 산하 도서관들은 도서 원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더라도 해당 원본의 디지털 사본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출판사가 이미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한 보호 조치로 새로운 디지털 사본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약하였다.

구글(Google)은 2004년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과 협약하여 해당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스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구글 북스(Google Books)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서를 스캔했기 때문에 미국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와 작가협회(Authors Guild)가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sup>16)</sup> 이 소송에서 AI가 주요한 쟁점은 아니었으나, 디지털화된 자료의 경우 AI가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구글 북스 프로젝트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미국 작가협회가 생성형 AI 개발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작가들의 작품이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되어 책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요약이나 후속편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sup>17)</sup>

이와 함께 같은 2023년에는 뉴욕타임즈에서 Chat-GPT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사례로 외국 대형 출판사들은 국내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번역기 사용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AI를 통한 오역을 축소하고, 원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유출을 차단하고자 하였다.<sup>18)</sup>

AI는 도서관과 사서들에게 필요한 수단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대규모 언어 처리 모델은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도서관 자동화, 로봇 활용, 이용자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주제 색인, 자기주도 독서, 장서 개발, 참고 정보 서비스, 정보 검색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sup>19)</sup>

이런 사례를 통해 도서관은 공정이용과 자료의 보존이라는 공공성에 기반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AI 리터러시와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 규제를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5) 이상욱 (2021).  
유네스코 인공지능(AI)  
윤리 권고 해설서: 인공지능  
윤리 이해하기.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6) 권용수 (2016).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저작권  
동향, 2016(8), 1-4.

17) 변희원, 김성민 (2023).  
AI가 왕좌의 게임 속편까  
지 써...저작권 침해. 조선  
일보,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9/22/XDKLOLBTVZAE5MWEAN45X7GCNU](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9/22/XDKLOLBTVZAE5MWEAN45X7GCNU).

18) 이호재 (2024).  
해외 대형 출판사들, "AI  
번역금지" 국내 출판사에  
계약 요구. 동아일보,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121/123159869/1>.

19) K. R. Senthikumar (2024).  
AI assisted Library  
Reconstruction. 미국: IGI  
Global.

## 4. 전문도서관 성과관리

### 4.1. 전문도서관 성과관리 사례

전문도서관은 특정 주제분야 기관 연구자가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소속 도서관에서 파악해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축적하여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기관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sup>20)</sup> 이렇듯이 전문도서관은 각 모기관에서 생산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를 다시 기관 내·외부로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에서는 기관 리포지터리(IR: Institutional Repository)를 구축하며 기관 내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서비스하며 연구성과물의 확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sup>21)</sup>

더불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sup>22)</sup>에서는 연구보고서, 위탁연구보고서, 용역보고서, 장기자문보고서, 직원 논문, 국외출장보고서, 특허, 시험 및 해석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 및 연구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보고서의 성격에 따라 보고서의 검수부터 등록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기도 하고, 연구윤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에 전자도서관에서 과제별, 기술트리별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된 여러 전문도서관에서는 기관의 연구성과물 관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대체로 자료의 수집과 보존, 확산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도서관의 업무 영역의 확대를 통한 기관 내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구성과물의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 이명희 (2017).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현황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서의 인식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157-179.

21) 강소선 외 (2012).  
톡톡 튀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1권, 세종: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22) 남은경 (2018.8.30.).  
2018년도 전문도서관 경영  
교육과정: 전문도서관의 연  
구성과 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문도서관협의  
회. 출처: <http://www.ksla.info/pc/sub03/sub0301.html?A=7&B=&C=&uid=726&page=2>.

23) Cynthia Hudson Vitale.  
(2024).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Releases Guiding  
Princip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출처:  
<https://www.arl.org/news/association-of-research-libraries-releases-guiding-principles-for-artificial-intelligence>.

### 4.2. AI 윤리 적용 제안

이에 따라 연구도서관 협회(ARL)는 AI를 위한 연구도서관 지침 원칙<sup>23)</sup>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아래의 7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 (1) 디지털 리터러시의 촉진
- (2) AI 편향 인식 제고
- (3) AI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 및 방법론의 정보 공개
- (4) AI 이용에 대한 인간의 참여
-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통한 AI 시스템의 침해 예방
- (6) 저작권법 집행
- (7) 지적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의 공정 사용 형평성

사회적으로 AI가 확산됨에 따라 기관의 연구성과물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그렇기에 전문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저작권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3.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는 2가지의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를 수행하며 제안한 연구용역 계약서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도서관 현장 사서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AI의 영역이 확대되며,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만큼 새로운 제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이에 전문도서관 사서에 대한 현장의 소리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의 AI 이용 윤리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1. 김지원 (2017).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학과.
2. 권용수 (2016.).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저작권 동향, 2016(8), 1-4.
3. 박희영 (2023).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안(AI Act)과 저작권법: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3(19).
4. 윤상필 (2023). 미국 인공지능 규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16(2), 235-240.
5. 윤종민 (2023).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관계 정립 방향. 강원법학, 23(11), 1-52.
6. 이명희 (2017).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현황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서의 인식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157-179.
7. 정동규 (2017). 인공지능 기술과 주요 적용 산업 동향.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5(2), 21-28.
8. 최창환 외 (2023). Chat-GPT와 생성형 AI가 만드는 빅테크 플랫폼 혁신. Issue Monitor, 159.

### [단행본 및 정부보고서 등]

1. K. R. Senthikumar (2024). AI assisted Library Reconstruction. 미국: IGI Global.
2. 강소선 외 (2012). 톡톡 튀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1권. 세종: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3. 강진원, 김혜나 (2024). 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관계부처 협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서.
6. 이상욱 (2021). 유네스코 인공지능(AI) 윤리 권고 해설서: 인공지능 윤리 이해하기.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 이윤우 (2024). NAB 국외출장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8. 조성민 (2024). AI 대전환 시대, 초격차 AI. 서울: 열린인공지능.
9. 채명식, 조유리 (2023). KISTEP 브리브 110: 2023 인공지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신문 등 전자자원]

1. Cynthia Hudson Vitale (2024).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Releases Guiding Principl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출처: <https://www.arl.org/news/association-of-research-libraries-releases-guiding-principles-for-artificial-intelligence>.
2. 구경민 (2023.8.22.). 신문협회'생성형 AI뉴스, 뉴스저작권 침해 방지'기준 마련 촉구. 머니투데이,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217501155986>.
3. 남은경 (2018.8.30.). 2018년도 전문도서관 경영 교육과정: 전문도서관의 연구성과 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출처: <http://www.ksla.info/pc/sub03/sub0301.html?A=7&B=&C=&uid=726&page=2>.
4. 변희원, 김성민 (2023). AI가 왕좌의 게임 속편까지 써...저작권 침해. 조선일보,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9/22/XDKLOLBTVAE5MWEAN45X7GGNU](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9/22/XDKLOLBTVAE5MWEAN45X7GGNU).
5. 유원모 (2023). 생성형 AI의 뉴스 학습, 언론사에 대가 지불 의무화해야. 동아일보,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19/122684215/1>.
6. 이호재 (2024). 해외 대형 출판사들, "AI 번역금지" 국내 출판사에 계약 요구. 동아일보,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121/123159869/1>.

## 연구용역 계약서

본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_\_년 \_\_월 \_\_일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서이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성실히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은 첨부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갑은 을에게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탁한다.
2.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 본 연구 총괄 운영
  - (2) 본 연구 기획, 조사, 연구 진행 등 전 단계의 연구 (연구 과정 기재)
  - (3) 연구 결과보고서 집필
  - (4) 기타 갑이 요청하는 연구 관련 제반 업무
3. 을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관련된 모든 법적 및 윤리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 (계약기간)

1. ‘을’의 연구 기간은 0000.00.00.로부터 0000.00.00. 까지 (0개월)로 한다.

### 제3조 (연구과제 수행)

1. 을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자료와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를 관리하고 취득한 일체의 직무상, 재산상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4조 (연구비 지급 및 사용)

1.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총 0원으로 하며, 갑은 연구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2.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되며, 을은 연구비를 대한민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3. 연구비의 집행 및 사용은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되며, 이 법에 따라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 (연구계획의 변경)

1. 을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1. 을은 연구 수행 종료 후 \_\_월 \_\_일까지 연구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경우, 필요한 경우 을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을은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7조 (연구결과의 이용 및 공개)

1. 갑은 연구결과물을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및 베른협약 및 국제 저작권 협약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구 결과물의 저작권(저작권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포함)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3.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물의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 전부를 을로부터 이관받으며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양도, 재사용 또는 상업적 활용할 수 있다.
4. 연구결과물의 모든 이용 및 공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제8조 (연구 윤리 준수)

1. 을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 단계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나. 연구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고 관리한다.
  - 다. 연구비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
  - 라.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책임과 권리를 분배한다.
  - 마.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적절한 인용 절차를 따른다.
2. 을은 연구진 모두가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 제출 시 연구 윤리 준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연구 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갑은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4. 연구 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나. 연구 과제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 다.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연구 참여 제한
  - 라. 연구 결과물의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마. 기타 연구 윤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 조치
5. 연구 윤리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을은 연구 윤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제9조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규정)

1. 을은 연구과제 수행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연구에서 생성된 결과물 중 인공지능(AI)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 및 내주를 통해서 표기하고, 이후 판권기 하단에 인공지능(AI) 사용의 범위와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
  - 나. 인공지능(AI) 활용이 연구 결과물의 신뢰성 및 연구 윤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AI) 도구의 사용 방식, 학습 데이터, 알고리즘의 특성 그리고 결과의 해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는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 목적 외 의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라.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에 있어 인공지능(AI) 도구의 결정이 연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마. 인공지능(AI) 도구의 편향성과 차별 가능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을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인공지능(AI) 윤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AI) 윤리 검토를 실시한다.

나. 인공지능(AI) 도구의 결정에 대해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인간의 검토 및 개입 절차를 마련한다.

다. 인공지능(AI) 도구의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실시한다.

3.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작성된 연구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귀속되며,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을은 해당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4. 을은 인공지능(AI) 도구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을은 인공지능(AI) 도구의 학습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갑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6. 을은 연구에 사용된 인공지능(AI) 도구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연구 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

7. 본 조항의 준수 여부는 갑이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 (손해배상)

1.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갑의 직원 신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1조 (연구과제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을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갑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미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해 정산 의무가 있으며, 위 법령에 따른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 제12조 (기타 사항)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갑의 규정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해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00.00

갑 (기관명) 대표자명 (인)

을 (기관명) 대표자명 (인)

[별첨 1]

연구계획서

연구담당자	성 명	
	소속(지위)	
	주 소	
	연락처	
기관책임자	성 명	
	소속(지위)	

본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제출자명 (인)

[기관명] 귀하

연구개요

연구과제명		
연구 목적		
연구 내용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연구 방법		
AI (AI) 활용	활용범위	
	주요내용	
	주요 사용도구	
연구기간		[월별 진행 일정]



## 소요예산내역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총계			
1. 인건비			
2. 경비			
가) 수용비			
나) 여비			
다) 회의비			
라)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 [별첨 2]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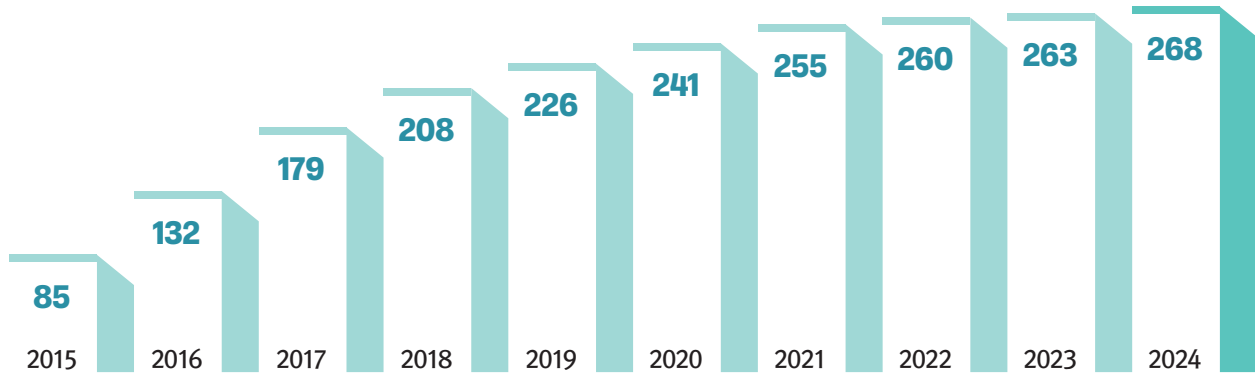
나는 연구 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및 연구 결과의 공익성·진실성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고,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하지 아니하며, 결과 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2. 유사·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3. 타인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연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5.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하여 법적,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연구 윤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서약일 0000년 00월 00일

서약자 (인)

### 가입연도별 기관수(누적)



### 관종별



### 2024년 신규 가입기관(6개관)







2024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활동 소식지

National Association for Policy Information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기획 및 편집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발행처 국립세종도서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사무국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

☎ (044)-900-9062    ✉ [napi@korea.kr](mailto:napi@korea.kr)    🌐 <http://napi.nl.g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종도서관